**A close up of a sign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선교 활동 보고**

**길 위에서 화해를 모색하다**

지난 봄 미국 남서부를 여행하던 캐시 미첼은 동료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바호족의 중심지인 애리조나주 친레에 있는 [트리니티 장로교회](https://www.facebook.com/pages/Trinity-Presbyterian-Church/153854112026972)의 미원주민 출신 사역장로인 캐시는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3년 [장로교 평화 증진 프로그램](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peacemaking/)에서 주최한 세 번의 [여행 연구 세미나](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peacemaking/travel_study/) 중 마지막 세미나에서 앨버커키에서 피닉스까지 가는 9일 동안, "자신의 현재 모습과 부름을 받아 되어야 하는 모습"과의 화해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미첼의 열정이 펼쳐졌습니다.

"미 남서부 원주민의 땅: 발견의 교리와 오늘날의 그 폐해" 여행 연구 세미나는 [산타페 노회](https://santafepresbytery.org/)와 [사우스웨스트 대회](https://synodsw.org/)가 함께 진행한 사역입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참가자들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경험담을 듣고, 미국장로교 아메리카 원주민 교회와 교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럽 정부가 원주민이 점령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종교적,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발견의 교리](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racial-equity-womens-intercultural-ministries/gender-and-racial-justice-ministries/doctrine-of-discovery/)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세미나는 부분적으로는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https://pma.pcusa.org/donate/make-a-gift/gift-info/PG999999/)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성만찬 주일에 걷는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ace-global-witness/)은 금액의 절반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평화 증진과 세계 선교 노력에 쓰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올해 세계 성만찬 주일은 10월 6일입니다. 25%는 교회 인근 지역 평화와 화해 활동을 위해 개체교회에서 사용하고, 25%는 더 넓은 지역 차원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중간 공의회로 보냅니다. (교회와 사역에서 이 특별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하세요)

세미나에 참여한 두 명의 회원 덕분에, 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세컨드 장로교회](https://www.2presrichmond.org/)는 원주민 부족과 지역사회의 치유와 회복에 깊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크레티아 맥컬리와 그녀의 남편 댄 램은 "버지니아에 살면서도 북부 평원에 있는 주들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저희는 그 지역의 원주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아메리카 원주민과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이번 여행이 이상적이었습니다."

리치몬드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크레티아와 댄은 여행 연구 세미나를 통해 삶을 변화시킨 경험에 대해 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컨드 장로교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교회와 예배당에 필요한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을 기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갈등과 불의한 시스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능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서 평화와 정의에 대한 교단의 헌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헌금이 모여 평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헌금'에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 미래를 위해 헌신하려 합니다. 오늘과 매일 이 곳에서 주님의 통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